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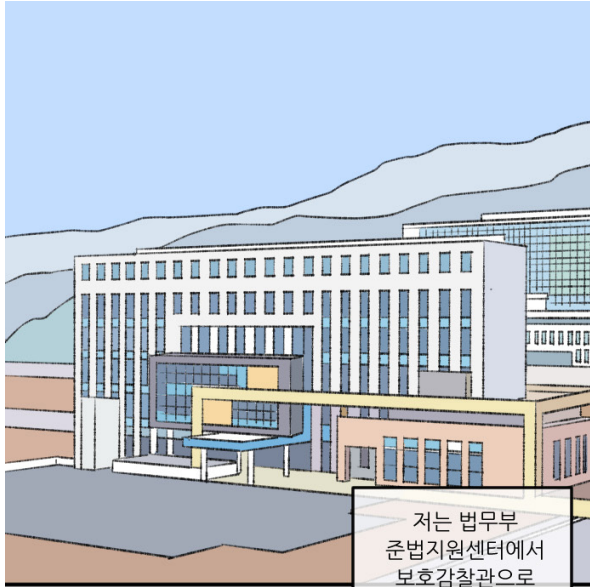
무수상



다음은 없습니다

임수연





저는 법무부
준법지원센터에서
보호감찰관으로
일합니다.



이건 얼마 전의 일로
상담실이 소란스러워서
어떤 일인지 궁금해
가보았습니다.



보호관찰대상자 분이
사온 아이스크림으로
실랑이를 벌이고 있던
모양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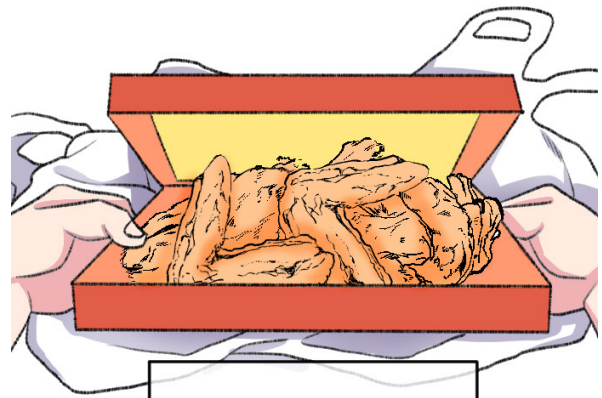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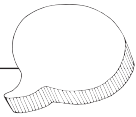
실랑이는 끝날
기미가 없었고
아이스바에는
물방울이 송골송골
맺히기 시작했습니다.
그때 문득 17년 전
새내기 공무원으로
근무 할 때가
떠올랐습니다.



고등학생이던
상철이는
치킨 가게의
배달용 소형
오토바이를
훔쳐서 보호관찰을
받게 되었습니다.



당시 오토바이
절도는 주로
날렵하게 생긴
스포츠бай크를
대상으로
이루어졌기 때문에
좀 의아했습니다.



그 후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그 치킨집에서 배달 알바를 하게 된 상철이는 허죽거리며 양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.





어떻게 할 거야?

한 번 받으나 열 번 받으나 같은거야.



아, 글썄요. 모두 모여서 함께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? 상철이도 같이.

선배의 물음에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자



선배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.

상철이 마음은 알았으니 됐고, 이 치킨 값은 내가 지불하지.

그리고 모두가 함께 먹는 걸로 하자.



상철이는 몇 번을 사양하다가 치킨 값을 받고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.

선배님!



일상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네요.

